

2016년 5·18 문학상 본상 심사평

5.18 문학상은 올해 처음 신인상과 별도로 본상 제도를 마련해 운영했다. 신인들의 작품만으로는 5·18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계승하고 확산하는 일이 힘에 부친다는 판단에서였다.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년도(2015년)에 출판된 모든 문학 관련 저서 및 문학 관련 단행본을 포함했다. 황현산, 김진경, 임철우, 나희덕, 김형중 이렇게 다섯 사람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3개월간에 걸쳐 작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상 수상작 후보에 오른 것은 다섯 권의 단행본이었다.

염무웅의 평론집 『살아 있는 과거』는 식민지시대부터 오늘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늘 민족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시, 소설, 비평 등 모든 장르에 걸쳐 문학이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한 역작이었다.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원로평론가의 즐기찬 시도는 5.18문학상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이념 자체라고까지 말해도 무방할 만한 성과였다.

전성태의 소설집 『두 번의 자화상』은 때로는 서정적인 문체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우리 삶의 세목을 짚어낸 단편집이었다. 작품집에 실린 잘 짜인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그 상처가 단단한 웅이처럼 박혀 있다. 사회사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이룬 이 작품집 역시 5·18문학상이 주목할 만한 소설적 결실이었다.

백무산의 시집 『폐허를 인양하다』가 주는 묵직한 감동은 시인이 세계와 치열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듯했다. '노동자 시인'에서 '대지의 인간'으로 시세계의 내포와 외연을 동시에 넓혀온 시인에게, 이제 싸움의 외부는 없어 보였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노동착취, 핵 등 수많은 폐허들과 싸우는 동안 그는 "세계의 모든 변두리에서 나는 나를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폐허를 인양하기 위해 중심/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버려진 것들의 반란'과 '주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적 노력'은 5.18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다.

장성자의 동화 『모르는 아이』는 전 세대의 역사적 경험 전수라는 문학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한 작품이었다. 제주도 4.3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분단사회에 작동하는 거대 폭력을 일상적이고도 친숙한 언어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5·18 정신에 그 맥이 닿는다. 한 세대 만큼의 세월이 지난 5·18을 어떤 방식으로 후속 세대에게 전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 작품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 네 작품들이 가진 장점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결국 본상 수상작을 『금요일엔 돌아오렴』으로 정하는 데에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은 전혀 이견이 없었다. 르포 문학에 속한다고 해야 할 이 책은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이 쓴 유가족들과의 인터뷰 모음집이다. 이 책이 작년 한 해 내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린 공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에 참가한 11명의 작가들이 문단 내부에서는 낯선 얼굴이라는 점, 그들이 조직적으

로 진실의 기록에 기꺼이 동참했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문학장르인 소설과 시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역할을 ‘르포’를 통해 훌륭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흔히 세월호 사건을 두고 5·18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대의 참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저작은 그러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 현재 한국 문학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와 소설 위주의 장르 편제는 ‘말로 하기 힘든’ 역사적 상처를 발 빠르게 기록해 내는 데 적합한 체제인지 등을 진지하게 묻는다. 그 내용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형식,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해 던지는 발본적 질문 등을 고려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2016년 5월 9일

심사위원 : 황현산, 김진경, 임철우, 나희덕, 김형중